

노형동 — 함박이굴, 방일리, 개진이, 드르구릉

강 덕 환

(시인,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조사원)

인류 탄생의 기원을 창조설에 두건 진화설에 두건 여기서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또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견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다. 다만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모색되어 왔는지를 더듬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 발전을 가로막았던 사례는 어느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존재해 왔고, 그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엄연히 인류문명은 모든 역사의 한 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밑그림으로 하여 특정한 지역을 설정하고 반추해 보기로 하였다. 즉 한반도의 남녘 제주라는 섬, 거기에서도 제주시 노형동, 그 중에서도 일부분, 4·3 당시 노형 2구에 속했던 함박이굴, 방일리, 개진이, 드르구릉이다.

분명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선연히 남아 있어 찾는 이로 하여금 담박에 느껴볼 수 있다. 그러나 애정을 가지지 않고 덤빈다면 밀감나무 과수원에

불과하고, 그저 농사나 짓는 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나무 숲은 베어지고 개간되어 한 뼉의 땅이라도 넓혀 이용하려는 땅주인의 의도에 의해 얼마 남겨지지 않았고, 타는 목줄을 축여 쫓을 우물은 매워져 주의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흔적조차 희미해져 버린다.

마을 주민들의 쉼터이자 공동체 장소의 구실을 톡톡히 해냈던 아름다운 팽나무도 베어져 흔적없이 사라졌다. 또한 대학이 들어서고, 도시개발로 인해 형태마저도 온전하게 드러내기를 거부하며 불과 10여년 사이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남은 것이라곤 집과 집을 이어주던 올래(골목)길의 돌담,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다. 그러나 이를 한 꺼풀 벗겨내면 반세기 전 무자(戊子)·기축(己丑)년의 웅고된 피가 보이고, 남부여대 덜렁 이불 보따리 하나쯤 챙기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겨야 했던 맺힌 한이 녹녹히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노형, 아흔 아홉 골의 정기가 여기 머물렀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노형을 일컬어 유림촌, 혹은 선비촌으로 불러지길 좋아한다. 전통적으로 문사가 많이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를 숭상하는 풍토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면서 최근에도 사법고시 출신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973년 8월 15일자 「제주신문」에는 ‘준재의 마을 노형동’이라는 제하의 이러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당시 한 농촌 마을에서 여섯 명씩이나 법조계에 진출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 근처에는 이 마을의 설촌과 무관하지 않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노형이 설촌되었던 원노형의 절동산(지금의 유나이트 아파트쪽. 절이 있어서 절동산이었다고 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에 초가집 반쪽만한 거

대한 돌이 있었다. 저울추처럼 생긴 돌이었는데, 노형 사람들은 이 돌의 정기를 받아 힘이 세었다. 그러나 돌을 노린 조천 사람들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이 돌을 절동산 밑으로 굴러 떨어뜨려 버리자, 돌에서 비둘기가 포르릉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힘쓰는 일은 사라지고 대신 공부에 열중한 결과 문사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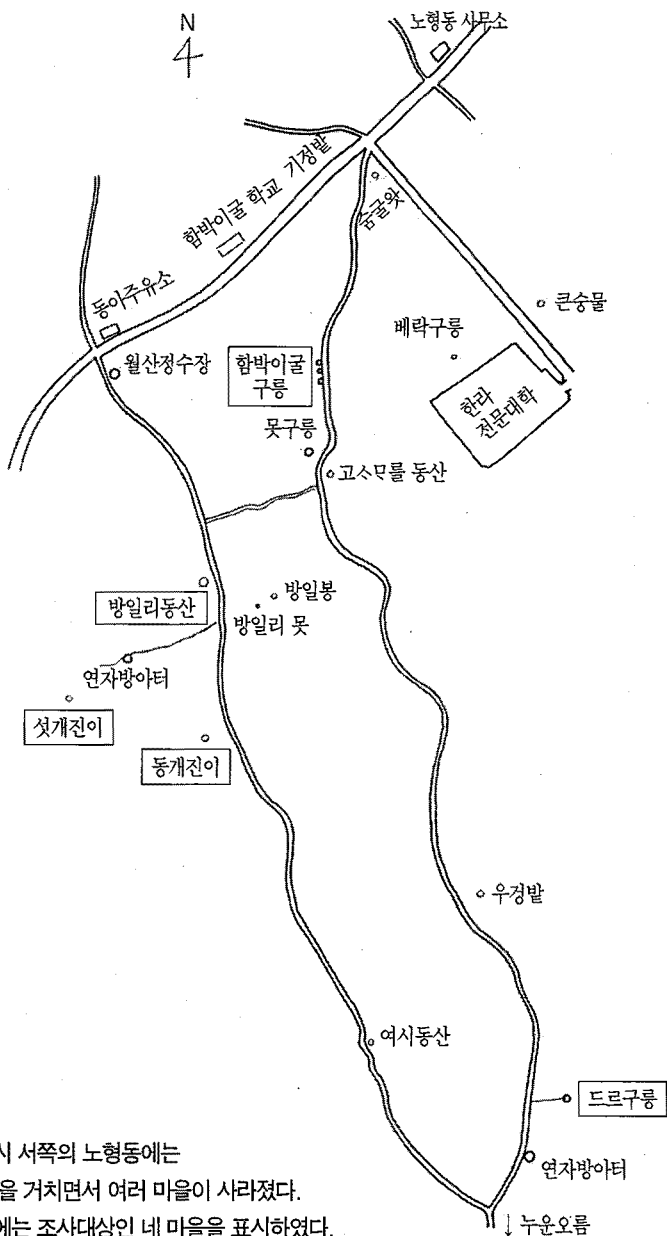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제주도 풍수계의 신화적 존재인 고흥진(高弘進)이 아흔 아홉골의 정기가 이 마을에 머물렀으니 설촌을 하라고 해서 생성된 마을이라는 내력도 갖고 있다.

또한 풍수지리상 유룡형(遊龍型)으로 포악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한다. 특히 정언(正言 : 지금의 법원장급) 벼슬까지 지낸 바 있는 고경준(高景峻)에 대한 이야기는 '선비촌' 임을 자랑할 때 으레 인용된다.

조선 말엽 제주목에서 대정현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었던 노형에 살았던 고경준이 어느 날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목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정도쯤이야' 하고 뇌까렸던 것이 식구들에게 '무슨 재주로'라는 타박만 받게 되자,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 급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쨌건 한라산을 머리에 이고 있는 오름들의 맹주처럼 버티고 선 어승생 오름 자락 북단에 펼쳐진 노형은 제주 시가지를 중심(관덕정)으로 하여 서남 방향으로 4~5킬로미터 정도에 위치한, 지금의 제주일고 동쪽 일대인 더령굴을 중심으로 5~6백년 전에 이씨가 제일 먼저 정착하면서 설촌이 되었다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명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지형이 '노를 젓는 형상'(櫓形)이라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며, 노형(老兄)이라는 표기가 구한 말까지 이어진 기록도 있었다. 지금의 표기는 광무 8년(1904)에 편찬된 『삼군호구가문총책(三郡戶口家門總冊)』에서 비롯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토질이 비옥한, 수저 모양을 하고 있는 무게 중심(老衡)의 명당이라는 해석을 달기도 한다.



▲ 제주시 서쪽의 노형동에는
4·3을 거치면서 여러 마을이 사라졌다.
지도에는 조사대상인 네 마을을 표시하였다.

더령굴(元老衡)의 설촌과 함께 다랑곶(月朗) — 배리가름(正尊) — 넓은드르(廣坪) — 새비리(月山) 등으로 넓혀져 동으로는 한라의료원 옆의 마두천에서부터 서쪽의 무수천(나중에 해안동까지 행정구역에 편입됨)에 이르고, 남으로는 어리목, 북으로는 일주도로 위쪽까지 고구마 모양으로 현재의 노형이 자리잡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마을이 생겨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풍수적으로 마땅한 자리를 찾고 비탈진 중산간인 경우 식수로 사용할 물이 있으면 좋았다. 그 물이 지하수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물을 만들면서 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만큼 제주에서는 강이 없고 토질이 화산토여서 비가 와도 물 빠짐이 강하다 보니 물은 소중하게 다뤄지면서 삶의 중요한 원천이었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비옥하고 넓은 목야지나 농토가 있으면 금상첨화였다. 노형에서 서부산업도로로 이어지는 길의 광평 마을 위쪽으로 마을이 생겨났던 이유도 다름 아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노형지역의 마을과는 달리 다소 설촌이 늦어졌지만 사람이 살았던 곳이 있다.

함박이굴(艦泊洞), 방일리(昉日洞), 개진이(隱山洞), 드르구릉(野泉洞)이 연이어 형성되어 갔다. 애초에는 정존이나 광평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부터 약 130년 혹은 150년 전에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살았다고 전해진다. 이곳에 살았던 증언자들 대부분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증조할 아버지 혹은 고조 대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함박이굴은 현재의 한라전문대학 서북쪽 일대에서 방일봉 북동쪽으로 비탈지게 이어진 굴형진 곳을 일컫는다.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경위에 대해서는 지형의 모양이 배가 정박한 모습처럼 되어 있다고 하고, 함지박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인 함박에다 굴은 굴의 뜻을 지닌 음가자 표기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곳은 150여 년 전 양씨, 김씨, 현씨 등이 거주하면서 설촌되었다 한다.

함박이굴에서 서남쪽으로 동산(7소모를동산) 하나를 넘으면 방일리



◀ 드르구름에 선연히 남아있는
옛 골목길

가 있다. 130여년 전 정존에 살던 문기방, 문기린, 문기학 3형제가 설촌했다고 한다. 방일이란 이름은 상동, 하동을 가르는 마루를 중심으로 날 일(日)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얘기가 있다. 방일봉(해맞이 동산)이 있는데, 표고는 113미터로 야트막하다. 산 마루가 봉긋이 부풀어 올라 있는데, 옛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올라 해를 맞았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이 방일봉 바로 북쪽에 방일리라는 자연마음이 설촌되었다. 4·3 후에는 3개 가구(양승필 조모, 현만형, 현규언)가 잠시 거주한 적은 있으나 그 후 사람이 살지 않다가 최근에는 이 마을 출신 한 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기타 가건물의 공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그 남쪽으로 예전에 '넙은드르'에서 살다가 예닐곱 가호가 불에 타버

리는 바람에 올라와 살면서 이루어진 동네가 개진이라고 전해진다. 지나가던 정시(지판)가 살펴보니 '개가 앉아있는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는 '은산동(隱山洞)'이라고 하는 걸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법하다. 연주 현씨들이 이곳에 이주하여 살았던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일제 때는 방일리와 비슷한 규모의 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동개진이' '섯개진이'로 나뉘어지기도 했다.

'드르구릉'은 말 그대로 들판에 큰 못(구릉)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된 마을이다. 소가 물을 먹다가 빠져 죽을 정도로 깊고 거대한 우물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잡풀만 우거진 상태로 메워져 있다. 한라전문대 서쪽의 ㄱ소모를 동산을 따라 1.5킬로미터 정도 올라가면 지금도 감나무와 대나무들이 있는 집터들이 있었는데, 설촌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250여년 전인 1745년 경 이씨 등이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을 어귀에는 아름드리 팽나무가 있어서 설촌 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으나 4·3 당시 베어져 지금은 그루터기조차 없다.

이들 네 개의 자연마을은 4·3사건 당시 84가구에 412명(함박이굴 — 20가구 120명, 방일리 — 30가구 121명, 개진이 — 18가구 84명, 드르구릉 — 16가구 87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해당 지역 출신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어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노형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셈하여 보려고 해도 역시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의 미비로 어렵다.

노형 지역에는 이들 마을 이외에도 또 다른 군소 마을들도 있었으나 4·3사건 이후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목사 이형상이 1704년에 편찬한 『남신박물』에 의하면 1526년 목사 이수동이 5방호 소에 과원을 설치하고 감귤을 심어 그곳 군사들로 전수를 겸하게 하였고, 그후 점차로 더 설치되어 노형에도 과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때의 과원은 오늘날 과원동산이라고 불리우는 제주일고 동북쪽의 평지인데,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의 마을이 있었으나 4·3 때의 소개 이후

다시 복귀하여 살지는 않고 있다. 또한 해방 당시 9가구 정도 살았던 월산 마을의 물옥이(水玉洞)나 석수기못, 문덜운이 등도 형성되었었지만, 지금은 노형동에서 사라져버린 마을들이다.

일본군 주둔과 공출 압력에도 교육열은 타오르고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물에 얹힌 얘기를 왜 많이 하는 걸까. '배 보든(기름지지 못한) 정준이(정존)'라고 했듯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물인 듯 싶다. 그래서 물이 솟는 곳을 찾거나 우물을 만들었다. 어느 마을이나 공히 우물을 두 서너 개씩 주위에 거느리고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렇다. 함박이굴의 경우 지금은 쓰임새가 사라지고 쓰레기 더미만 쌓여 있지만, 세 개의 못이 남아 있다가 최근 위쪽 두 개의 못은 사라지고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다. 제일 위쪽의 못은 식수로, 중간의 못은 채소 등속을 씻는 곳으로, 그리고 아래쪽의 못은 우마들을 먹이는 철저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다.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처지였다.

특히 드르구릉은 마을 명칭에서조차 구릉(못)이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갑인년 흉년에도 먹다 남은 게 물'이라지만 가뭄에 우물이 말라버리면 누운 오름 근처의 배염나리나 석수기못까지 가서 '산물(용출수)'를 길어다 먹었다. 제사 때도 정성을 드리느라 마찬가지였다. 일본 놈들은 우물 물을 못먹겠다고 하여 용출수를 공출받기도 했다.

물방애(연자방아)도 마을 공동의 없어서는 안될 터전이었다. 마을마다 2~3개씩은 있어서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는 서로 돕는 공간이기도 했다.

여름에 연자방아에다 보리를 갈아야 했지. 음력 8월이 되어 출(꼴)을 베려고 하면 쌀을 장만해야 출발에 가거든. 그러면 방아를 다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해. 아침에 좁팍(되처럼 사용했던 생활도구)에 쌀이나 보리 한줌을 담고 방



▲ 개진이의 연자방아 터에는 돌무더기만 쌓이고.

애에 갖다 놓면 자기가 먼저 한다는 표시거든. 보리방아 할 때가 제일 바쁠 때라. 여인네들이 참 불쌍했지. 방안에 보리쌀을 갈면서 '이어도 이어도 이어...' 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노래했던 거야. 쌀은 쌀대로 좁쌀은 좁쌀대로 갈아야 했지. 물은 여기 가물 때는 이호리 덕지물까지 가서 물을 길고 올라와 밥을 해서 먹었어. (현익철, 83세, 제주시 노형동 광평)

노형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근대적 교육기관은 일제 치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상의 기본 예절에서부터 관혼상제에 따른 축문 쓰기 등 조직적이나 과학적이진 않더라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 왔다. 즉, 사숙(私塾), 서숙(書塾), 의숙(義塾), 서당(書堂), 글청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생겨나게 된다.

노형의 경우 선각자들에 의해 맨 처음 교육기관으로서 태동을 보게 된 것으로는 1921년 노형동 2350번지, 즉 함박이굴에 들어선 친진의숙(親進義塾)을 들 수 있다.

노형초등학교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이 의숙의 설립자금은 유지들로

부터 마련된 것이었다. 즉 친진회라는 친목단체의 후원으로 설립을 보게 된다. 친진회는 정존, 광평, 함박이굴, 방일리 등 노형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모임이었다. 이들 유지가 훈장을 초빙하여 그들의 자제들을 교육 시키거나 지역 일반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던 듯하다.

양응상(梁應祥)을 숙장으로 하는 이 의숙은 개량서당의 형태로 서당보다 한 차원 높은 교육기관이라고 전해지는데, 학자금도 만만찮아 작은 송이지 한 마리쯤은 들어야 가능했다고 한다. 소 한 마리와 웬만한 밭을 서로 맞바꿀 정도였을 때이니 녹록치 않은 부담이었다.

이와는 달리 또 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義成學塾 創立, 青年의 熱誠으로』라는 제목으로 1924년 2월 2일 「동아일보」 3면에 소개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濟州島 濟州面 老衡里는 本是 儒村이라 하여 新教育을 反對하는 弊端이 無히였는 바 當地 青年 數氏는 此를 痛嘆히 여겨 今春 老衡里 青年會를 組織하고 會長 韓星鎬氏를 비롯하여 有志 文斗準,¹⁾ 梁鳳祥, 玄仁宗²⁾ 諸氏의 斡旋으로 校舍와 其地를 買入하고 整備는 同里 區長 1區 金基業, 2區 洪鵬九 兩氏에게 一任하였는데, 塾長은 梁應祥씨이며 生徒는 50餘名인 바 遺風이 痲痺된 老衡里에 學塾이 出現한 것은 一般 濟州 人士는 慶賀하며 그 將來를 祝福한다더라.

이 의성학숙이 곧 친진의숙인지, 아니면 친진의숙의 전신인지는 아직 자료나 증언 등의 미비로 불분명하다. 친진의숙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성학숙에 대해서는 생소하다고 하였다.

친진의숙에 대한 그간의 자료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재적 학생수가 80여 명으로 6년 과정으로 개설되었는데, 연령이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

1) 방일리 출신. 신학문 보급에 뜻을 두어 친진의숙을 개설하고 숙장으로 봉직. 4·3사건 당시 사망.

2) 이명 현경호. 제주중학교 초대 교장 역임. 4·3사건 당시 사망.

이 없었고, 주로 재래식 서당에서 1~2년 수학했던 자가 편입하곤 했다.

교사는 당시 정원이 3명이었는데, 대부분 제주농업학교를 졸업한 현일호, 현규집, 양경종, 강승립, 양항부, 양지호, 양항봉, 양항지, 문찬석 등 10여 명이 역임한다. 국어(조선어), 일본어, 지리, 역사, 산수, 습자(서예), 창가(음악), 도화(미술), 주산 등을 위주로 하는 신식교육이 중요한 교육내용이었다.

또 친진의숙에는 여자 성인교육과정의 야학이 있었다. 봉건사상이 짙은 유림촌에서 여자가 낮에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청년 등 선각자들의 무지를 타파하려는 노력으로 향리 여성 교육에 눈을 돌릴 수 있었다.

노형 2구에 속했던 친진의숙(일명 함박이굴 학교라고도 했음)의 야학에 여성 정규반과 성인반인 여자 간이국어강습회를 열어 농촌계몽, 문명퇴치 등을 주로 담당하고자 했다. 수강자의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이 때 간이학교 강습소의 강사는 양항봉³⁾이었다. 그는 당시 제주읍사무소에 근무하던 때라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야학에서 혼신의 힘을 마을 여성교육에 쏟았는데, 노력과는 달리 봉건 유림사상에 떠밀려 부질없는 오해를 받기도 했던 일화가 전해진다.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흘러온 노형 지역의 교육은 이외에도 마을마다 서당 형태의 교육도 잔존하고 있었다. 명신의숙, 광평서당, 새동네글청(월산서당), 월랑서당(빌렛학교), 정실이서당 등이 소규모로 있었으나 신학문 교육기관으로 편입되거나 효용도가 낮아지면서 폐쇄되어 갔다.

이렇게 함박이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해방과 4·3을 거치는 동안 교사나 학생들이 많은 수난을 당하게 되는 과정에 놓여서인지 모른다. '똑똑한 사름은 다 죽어부러시킨'이라는 말이 이 지역인들 비껴갈 수 없는 시절이었다.

3) 제주읍사무소 부재무관(재무계장) 역임.



▲ 함박이굴 학교가 있었던 자리.

일제 때는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 빈집들이 더러 있었다. 이 빈집을 이용하려는 일본 군인들이 있어서 집을 뜯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무래도 군인들이 살게 되면 괜히 트집이나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일본군들은 함박이굴 학교에 주로 주둔했다. 천막들을 치고 살기도 했다. 본부는 어승생 뒤 승패왓이라고 하는 데에 있었는데, 지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전화나 전기도 들어가 있었다.

이곳은 4·3 당시에도 산부대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야전병원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은 오름에도, 남조순오름 서남쪽이나 방일리동산에도 굴을 파고 살았다. 방일리나 상여오름 뒤쪽도 마찬가지였다.

1945년 8월까지 제주도 전역에 6만~10만의 일본군이 들어와 있었는데, 총본영 구실을 했던 도리대 부대는 농업학교에, 에이꼬 부대(염광부대)는 한림지역에, 모슬포에는 아카사키 부대와 모슬포 비행장의 유년항공대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조순오름을 비롯하여 함박이굴에는 마흔 명쯤 되는 에이꼬 부대의 일부가 있었다는 말을 한다.

서로의 관계가 원만했던 탓에 일본군이 들어올 때에도 된장이나 채소 등을 갖다 주거나 연날리기도 같이 하면서 일본군들이 악랄했던 기억은 갖고 있지 않다. 해방이 되면서 떠날 때는 '항고'도 주고, 신발도 새것들을 주고 가더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고맙다는 말을 빠트리지 않으며,

그렇다고 여자들이 쉽게 나다닐 정도가 되지 못하거나, 징용이나 징병, 공출에 시달림을 벗어날 길은 없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어느 지역인들 자유스러울 수는 없었으리라.

공출 압력도 삶의 지탱을 힘겹게 했다. 통조림용으로 쓰일 우마들이나 돼지뿐만 아니라 곡식들, 절간한 고구마나 줄기까지 모두가 공출의 대상이었다. 할당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대가리라도 잘라 담고 채워야 할 정도였다. 면화도 화약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거뒀다.

노형의 전체 부락이 같은 날에 공출을 바쳐야 한다고 해서 먼저 자기가 바친다고 소에 싣거나 등짐으로 지고, 혹은 이고 난장판일 정도였다. 그들은 목장밭을 개간하여 논(무)을 갈아먹기도 했다. 알깨왓이라고 하는 개발사업소 북쪽에 있었던 밭이었는데, 2~3정보쯤은 뿔 거라는 추측을 한다. 그렇다고 소유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고, 돌아갈 때는 그대로 놔두고 갔다.

일제는 해방이 되고 떠날 때 남조순오름이나 어승생에 비축해둔 쌀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떠났다. 제주도를 본토 방어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던 일 본군의 마지막 발악장으로 생각하여 군량미를 외부에서 공출해 들여 온 것들이었다. 조센징들 먹는다고 해서 불태운 연기가 며칠을 두고 타올랐다.

4·3으로 이어지는 해방정국의 혼란

일본이나 만주로 징용, 징병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동네 사람들은 헤어졌던 지난날의 고생담을 나누며 해방된 조국에서 보람된 일을 하자

며 모여들었다. 동네마다 학예회를 하거나 축구경기를 개최하는 등 해방을 자축하는 행사를 열었다. 해방과 함께 친진의숙이 제주동공립국민학교 분교로 흡수 통합되었다가 1946년 4월 10일 함박이굴학교 자리에서 노형초등학교는 설립을 보게 되었다. 청년들은 야학을 열어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로 나서기도 했다.

인민위원회가 생겨나기도 했다. 노형에서는 1구와 2구가 따로 모여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해방과 함께 비로소 인민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며 선전하고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였다.

인민위원회란 것이 내가 알기로 무자년 봄에 꼭 한번 회의 있었던 것같은데, 인민위원장이 그 무자년 봄 몇 일날인지는 모르지만 함박 부락 학교 집에 다 모이라고 하여 모였던 적이 있어. 노형 1구 2구가 따로 모였어. 2구의 인민위원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나이가 예순 여섯 정도나 되었을 거라. 함박이굴 학교집 위쪽에 살았던 함박부락 사람이지만 광평에 살다가 간 사람이니 광평 사람이지. 이름은 말해줄 수가 없어. 나중에 이호 백개에 소개를 같이 갔는데, 그 어른이 백개도 소각해가니까 막 걱정하면서 자꾸 날 불려서 정세를 얘기하기도 했어. 그 어른도 당신이 인민위원장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마을이 의논하여 한 거니까. 인민위원장을 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우대한다고 해서 한 정도였지. 그리고 그때도 산에 있는 놈들이 딱 칼차고 해서 들어와 시키니까 거절할 수가 있었겠어.

나도 구경했는데 니쁜도라고 하는 게 중키 정도는 되는 긴 것을 탁 꽂아놓고 시키니까 평계를 어떻게 델 거라. 나중에 복구하여 올라오고 난 후에 나이드 들고 하여 돌아갔지. 군인들이 인민위원장 잡아들이라 하여 그때야 잡아들였지. 잘 먹지도 못하고 깡마른 노인이 무릎을 꿇어 앉은 걸 보니 군인이 하는 말이 “늙은 것이 뭘 하자고 인민위원회를 다니느냐. 다음엔 조심해” 하고 그냥 가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당시는 살아날 수 있었지.

(현명환, 73세, 제주시 노형동 광평)

1946년 여름에는 호열자가 나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했다. 일본에서 살다가 해방된 조국이라고 많이 찾아들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더러는 모국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48년으로 들어서면서 웅성거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노루생이오름이나 남조순오름에도 빗개(보초)가 섰다. 검은개라고 하는 경찰들이 토벌을 다니는 걸 보고 연락하면 산쪽에서도 대적하러 오곤 했다. 그냥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었다. 방일리 동산에도 빗개를 세웠다가 토벌대가 나타나면 나팔을 불면서 신호를 했다. 방일리 동산을 나팔 동산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나팔 불면서 기를 흔들었다.

방일리 동산에 서면 도령마루나 남조순오름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나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서 넘어 온 군인들이 붙인 이름이었다. 나팔을 불고 흰 깃발을 흔들어 대면 적군이 왔다고 해서 밭에서 일하다가도 숨어버리곤 했다. 봉개에서 봉화를 올리는 것도 보였다. 그 신호에 따라 방일리 동산에서도 봉화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어딘 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도 받아서 연락하는 신호가 되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산측에서 저녁 때쯤 되면 내려와 모이라고 했지. 공산주의라는 것은 아니고 남로당이던가 무슨 당인지 있었는데, 그러면서 널 모래면 우리 당이 곧 승리할 거니까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으니까 산으로 올라 오라고 했어. 청년들 명단을 적어서 안 올라가면 숙청하겠다는 협박을 했지. 낯엔 순경들이 와서 어제 저녁 어디 갔다왔냐면서 조사를 했어. “산에서 내려와 올라오지 않는다고 죽인단니까 죽지 않을려고 올라가 뭐 뭐 했수다” 하면 그 땐 산 사람, 폭도다 라고 규정해 버리는 거야. 나머지 가족들도 다 폭도 가족, 도피자 가족이라고 딱 정해버리는 거야. 이북 청년단들이 들어왔을 때 산쪽에 후원하는 사람들이나 비밀리에 산에 갔다 온 명단들 있으면 전부 불러내어 죽여버렸단 말이며. 이래노니까 그 당시엔 누가 사상적으로 폭도란 것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 사람들이지. (현명환)



▲ 봉화를 올리고 보초를 섰던 방일리 동산.

48년 5월 10일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있는 날이었다. 그 날이 있기 사나흘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야산으로 피신해 버렸다. 주로 고냉이 동산(제2횡단도로의 제주농고와 축산단지 중간쯤의 고개)쪽이나 방살리 근방이었다. 연동의 주민들은 거문오름 앞쪽으로 선거를 거부하기 위하여 올랐다. 도두리의 주민들도 상여오름 일대에 올라왔다.

이 시기 바로 전에 도두리의 대동청년단장(정방옥)과 단원(김용조), 선거관리위원장(김해만)이 상여오름 부근에서 팔과 다리에 말뚝을 박히고 생매장당한 사건이 있었다. 저마다씩 비가림 움막을 짓고 며칠 동안 피신해 있어야 했다. 자발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을마다 책임자가 있어서 주민들을 선동했다. 선거를 거부해야 너나 없이 잘 살게 되는 평등세상이 와서 쌀밥에 고기국을 먹을 수 있다는 선전을 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일장 연설을 하고 끝날 즈음이면 만세삼창을 하기도 했다.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에서인지는 몰라도 젊은 청년들은 왓싸 왓싸 하며 구보로 마을을 휘휘 돌아 올라오기도 했다. 5·10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는 집에서 기르던 돼지가

먹이를 찾아 동네를 휘젓고 다닐 정도였다. 일부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그냥 집에 머무르고 있어도 무방하였다.

도두리에서는 5·10선거를 거부하고 내려온 10여일 후인 48년 5월 18일, 초저녁 30여 명의 무장대가 습격한 일이 있었다. 경찰사 기록에 의하면 도두리를 습격하여 5·10선거 당시 산에 올라가지 않아 자기네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지목된 사람들 11명을 같은 동네 고모씨 집으로 모이게 하고, 이들중 6명을 납치해 간 후 학살해 버린 일이다.

노형동 개진이와 드르구릉을 지나 위쪽으로 1.5킬로미터 정도 올라가면 누운오름이 나타난다. 일제시대 땀던 굴의 흔적이 동쪽으로 남아 있고, 4·3 당시에는 산부대의 은거지가 되기도 했던 곳이다.

일제 때는 미군기와 일본기가 서로 맞붙어 싸우다가 이 오름 앞에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기억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누운오름에 바로 붙어 있는 냇가 동쪽 굴형진 밭에서 학살한 후 돌무더기 속에 파묻어 버린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칼과 창으로 20여 군대를 찔리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여인에 의해 알려지게 되는데, 이 여인은 도두마을 대동청년단장의 처로서 갯벽 속에서 살아나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관덕정에 있었던 적십자병원으로 후송된 후 그 상황을 얘기하고 절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학살된 사람들은 김광홍, 김순풍, 고정달, 장해동 등이고, 시신들은 나중해야 수습하게 된다. 1950년 산에서 활동하던 사람 중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잡힌 후 자백에 의해 그 장소를 확인하고 도두지에서 송모 순경의 인솔 하에 희생자 가족들과 같이 확인하여 시신을 수습해 왔지만, 김모 여인(당시 24세)의 시신은 끝내 수습하지 못했다고 한다. 납치의 주체가 누구였느냐는 것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4·3 초기의 이 사건은 상여오름 생매장 사건과 함께 이후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의 갈등양상의 잠복해 있는 단초가 되었다.

불타는 마을, 정든 터 뒤로 하고 떠난 피난길

소개명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옷한질(신작로)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던 9연대 군대 행렬이 월랑마을을 지나 초남동산에 이르렀을 때 방일리 동산에서 빗개를 서던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신호를 하자 노형 마을에 대한 방화는 시작되었다. 이 이전에 소개명령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언제 내려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설령 무장대와의 격리 차원에서 소개명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얘기를 한다.

한 예로 남원읍 수망리의 경우 소개명령서라는 것이 있어서 마을에 통보되긴 했는데, 당시 마을 이장도 없고 리 서기도 무서운 시국이라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소개하는 날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리 사무소 문틈에 소개명령서가 꽂혀 있더라는 얘기를 현지 주민에게 들은 바 있다.

노형의 경우 계획된 마을 소각이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나가려던 군인들이 빗개의 신호를 기화로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 단행한 것이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고 있다.

정존마을 못미처 월랑의 첫동네로 들이닥치면서 마을을 불태우기 시작한 것은 48년 11월 19일의 일이었다. 빨갱이 마을로 지목된 것이다. 가을철이라 출닐(꿀날가리)에서 출뭍음을 이용하여 불쏘시개를 만들고 휘발유를 뿌리며 집을 불태웠으며, 첫동네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쏘아 죽였다. 첫동네를 이렇게 휩쓸고 난 다음 정존과 광평마을로 이어갔다. 그 날 현용필(당시 27세)은 증조부의 제사가 있었던 날이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노형의 소개에 의한 토벌은 처음이었다. 함박이굴 마을도 이 날 불태워지기 시작했다. 함박이굴에 있었던 초가집 학교(다섯칸 정도의 규모였다

고 함)도 폭도들의 회합장소로 이용된다며 불태워지고 말았다. 방일리, 개진이, 드르구릉 등지에서는 월랑 마을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저마다 한라산 일대로 올라가거나 누운오름 근처 바개밭(지금은 쓰레기 매립으로 찾아볼 수 없음)으로 피신했다.

또 일부는 간단한 짐을 싸서 피난길에 올랐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 다시 돌아 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집안의 세간들을 그대로 두거나 곡식들은 텃밭에 비장해 두었다. 족보나 병풍, 제그릇들도 소중하게 다뤄지는 것들이어서 잣벽 속에 묻어두고 훗날을 기약하며 떠나는 길이었다. 이렇게 비장했던 곡식이나 세간들은 나중 중산간 마을에 대한 토벌 때 탈취당한 일도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행위 또한 나중에 해안 마을과의 갈등 소지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몸뚱이 하나 임시 대피하던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한 할머니의 증언을 들어보자.

가을에 감자를 캐고 집에 돌아와 있으니까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급하게 달려오면서, “빨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숨으라. 월랑이 불 붙고 있지” 하는 거라. 보니 하늘이 벌건 것이 하늘에다 불 붙인 것 같았어. 소리도 와당탕 와당탕 나는데 난 너무 놀라 조산 기미까지 있어, 아홉 살짜리 큰 딸, 일곱 살짜리 작은 딸, 세 살짜리 큰 아들 해서 올망줄망 세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방안에 퍼질러 앉았지. 남편은 무서워서 달아나 버렸고, 아기는 낳을 걸로 생각도 안했어. 그런데 배가 막 아파 달아나지도 기어가지도 못하고, 아래밭에 친정 어머니가 있어 겨우 잤는데, 어머니도 이미 달아나버린 것 같애.

그러니 텃밭 곁에 조그만 구렁이 있어서 아일 데리고 구렁 속에 들어갔지. 구렁에 덩불이 있었거든. 그 덩불로 우선 아이들을 덮어 그 속에 숨기고 나도 숨었는데, 나는 무척 배가 아팠어. 아파도 불 붙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아기가 나오는 거야. 아이들은 구렁 속에 얹어져 자버리고……. 밤은 깊어가고, 춥고, 배고프고 저녁도 못 먹었어. 다음날 남편이 어디서 나와 가지고 나보고

‘도망가라’ 하니까 오도룡(이호 2동)엘 갔지.

애기 낳아 하루도 못 쉬어보고 내려간 거지. 누가 물이라도 따뜻하게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 이호 내려가 있으니 우리집은 불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음날은 올라 와 고구마를 하루 종일 찐지. 그런데 저녁이 되니 ‘내일은 집에 불 붙인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날 저녁 갈증이 하나 입고, 어린 것은 구덕에 지고, 아홉살짜리는 누비 이불 하나 지우고, 일곱 살, 네살 난 건 손 잡고 오도룡으로 내려갔지. 그런데 남의 집에 아기를 내려 놓고 보니 아기가 거품을 물고 있어. 탁 씹워서 가버리니까 코가 막혔던 거야. 집 주인은 ‘뒤편 죽은 아기 업고 왔느냐’며 저 냇가에 던져버리라는 거라. 코가 막혔구나 하고 엎어져서 코를 빨아가니까 아기가 숨을 보오히 쉬며 살아나.

(이이양, 79세, 함박이굴 출신)

소개지에서의 수난

마을 소각과 함께 함박이굴, 방일리, 개진이, 드르구릉의 주민들은 오도룡이나 이호, 도두, 외도쪽으로 소개를 내려가곤 했다. 도평쪽으로 연고지를 찾아 떠난 사람도 있었다. 친척이 있으면 더욱 좋았지만, 알음알음으로 찾아가 방 한 구석이건 외양간이건 가릴 것없이 보금자리가 되었다. 특별히 지역을 지정하여 그곳으로 소개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다. 살던 곳에서 곧바로 해안 마을 쪽으로 내려가면 소개지가 되었다.

그런 생활도 잠시. 일주도로 변에 세워졌던 전주주들이 산사람들에 의해 절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두에서 외도로 이어지는 전봇대를 톱으로 절단하고 도망간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전주 세우기 작업에 동원된 주민들이 학살되는 사례와 함께 소개민 중에서도 남편이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어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속칭 ‘호병발’이라는 곳에서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48년 12월 7일, 토벌 당국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삽이나 곡괭이들을 가지고 나오라 하여 모이게 하고 총살했다.

이 때 희생된 사람들을 살펴보면(괄호안은 당시 나이) 김방형(39), 김순보(48), 김희관(41), 진인선(49, 여), 김용반(32), 백경홍(17), 양능(35), 양봉숙(55), 양성훈(30), 양향택(28), 이성란(28), 이원방(47), 현수현(13), 문두영 처(45, 여), 현규식(23) 등이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명단일 뿐, 광평 마을에는 더 희생자가 있다는 증언이 있다.

아픈 핑계로 옷도 전부 벗어두고 누워 있었어. 그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던 밑에 있는 집에 내려와서 돌(돼지) 추렴을 했거든. 전봇대 세우리 갔다가 소문을 들으니 오도롱 구장을 산에서 와서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토벌대들이 올라오다 보니 오도롱에서 돼지를 잡고 있거든. 돼지 잡는 것들은 산에서 내려와 잡는 거라고. 폭도촌이라고 하여 양말로 불쏘시개를 만들어 그 집에 불 붙여두고. 그 우녘집 내가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 바드드드 하는 소리가 나. 아내는 마당에 있다가 “도망치지 않으면 큰일 나수다. 아랫집에 군인들이 와서 불 부썬수다” 하는 거여.

대낮인데 도망갈 재간이 없어. 부엌에 있는 굴에라도 숨자고 하여 짐질을 뒤집어 써서 있으니 내가 사는 집에 불 붙이는 거라. 그래노니 아내는 굴 속에서 불에 타서 죽을까봐 나한테만 연락해 두고 나갈 수가 있겠어. 군인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총살시키겠다 하고. 집에 불이 전부 타 갈 때 “요 어른아” 하는 소리가 나는 거라. 그러니깐 군인이 “안에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니깐 “어수다(없다)” 하면서 아내가 나가는 것 같으니깐 부엌문으로 뛰어 서쪽으로 도망갔주게. 손목에 줄 매고 도망못가게 했어 호명밭에서 쏘아 죽일 때인데 난 도망쳐 버렸지.

(현명환)

별명이 ‘구름보’라고 하는 사람(현씨)이 저지른 이 일화는 4·3 당시의 제주지역 어디서나 지금까지도 잠복해 있는 또다른 비극을 엿보게 한

다. 4·3사건 당시 ‘밀세다리’ (밀고자)의 전형처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원래부터 악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우리 일가 사람인데, 처음엔 얼굴도 몰랐었지. 왜 그런고 하면 감티모자 폭 눌러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 해노니까 얼굴 모르게 손가락질하는 거라. 호병 발에서 노형에서 소개내려간 사람들 총살할 때 자기 누님도 손가락질 했어. 눈 감으라고 하면 눈 잔뜩 감았는데, 그 중에도 역은 공(약은 피를 부리는)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라보면, 밤에 초소엔 가면 ‘저 너븐드르에 현 뗏이엔 허 드라’고 하는거라. 너븐드르 현씨 중에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는데 누군고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원래 고향은 너븐드르지만 은산동에 간 살았었지.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지. 일본 무역선 타고 가다가 잡혀 경찰에 오니까 “내가 흑백울 가릴테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흑백을 가릴 수가 있느냐?”고 하니 “잘 가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 경찰에서 그 놈을 내세웠던 거지. (현명환)

그 사람은 나중에 정뜨르 비행장 앞쪽에 성안(제주 시내)과 외곽을 분리하는 성을 쌓을 당시 군인에게 잡혀 취조를 당하다가 경찰에 인계되었다.

총 개머리판으로 죽도록 패대기쳐 놓고 먹살 잡아 끌고 다니면서 지근지근 밟다가 “이 놈을 총살 해서 좋으냐, 살려서 좋으냐?”하니 누구 입 노신(날카로운) 사람이 없으니 총살하란 말이 없었지. 총살을 안시키고 군인이 잡아간 모양이야. 경찰에 잡아가서 “왜 이런 사람을 시켜 백성을 전부 죽이느냐?”고 하니까 “경찰에서 시켜서 한 일이니까 이번만 살려주면 이 다음엔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고 해서, 그 다음엔 어디 보내지도 않고 경찰서 입구에서 구두나 닦으면서 살다 죽었다는 말이 있어. (현명환)

청산이도로의 피신

이호(오도룡) 등지로 소개갔던 노형 주민들은 '전주 절단사건'으로 인해 호되게 당하고, 이제 삶의 피난처로 주민들은 산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변했다. 도평이나 외도쪽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그것도 불안하면 어린 식솔들을 거느린 부녀자들은 가족이 피신해 있는 도근천 상류인 현재의 축산단지 서남쪽 일대나 산중으로 숨어들었다.

지금 제주시 공동묘지 남쪽에 있는 걸시오름 뒤에도 많이 살았다. 열안지로 이어지는 곳이어서 물도 있었다. 산에 간 사람들은 밤에 살짝 양식을 얻거나 탈취해다가 먹으며 연명했다. 그런 일을 해안 마을쪽에서는 습격으로 간주했다. 가끔은 소를 잡아서 배급을 주기도 했다.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 다니며 정찰을 하기 때문에 불 피우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했다.

옛날 걸시오름 뒤로 왜놈들이 온 때 소나무를 심었거든. 거기서 동쪽 관음사까지 심었어. 왜놈들이 묘목은 그네들이 가져와서 심어놔서. 왜정 말엔 굴판 기둥 세우고 석탄 공장을 세우려고 하면 그 나무들을 여기 백성들 시켜 근로봉사라고 하면서 배라고 했지. 그 걸시오름 뒤에 살아난 흔적이 있어. 나도 4·3사건에 길 안내를 가면서 당시 걸시오름쪽엔 생소했는데, 토벌 가보면 나무들을 잘라 세우고 태역(잔디)이나 어육(역새)으로 벽을 만들어 사람들이 살아났더구만. 일단 땅을 파는데 깊게는 안파고 바람이라도 불면 숨지 안하게 임시 의지하는 정도지. 지금 시 공동묘지 곧 뒤쪽이라. (현명환)

토벌이 극심해지는 48년 말이나 49년 초가 되면 그보다 더 깊은 아흔아홉골 근처의 계같은 곳을 찾아 피신해야 했다. 2연대 군인들을 따라 다니며 정식 군인은 아니었지만 토벌을 다녀왔다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노로손이오름 넘어 걸시오름쪽으로 갈 때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가도 기관

총을 아무데나 대고 쏘아대면 나무같은데 웅크리고 숨었던 사람들이 다 락다락 떨어지더라는 얘기를 한다.

‘청산이도’라는 곳은 1949년 음력 2월 3일 2연대 주둔 군인토벌대에 의해 집단토벌된 곳이다. 이곳은 한라산쪽으로 아흔 아홉골 위쪽의 요새화된 지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궤가 두 군데 있어서 한쪽은 어린이나 노약자가 대부분 대피해 있었고, 또 다른 쪽은 청장년이 피신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도망가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피신해 있던 궤가 토벌을 당하면서 인명피해가 많았다.

특히 추운 겨울이었던 이 때 산속에서의 생활은 필설로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토벌의 충구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병이 들어도 구완할 방도도 없이 이름 석자 호적에 남기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죽어 갔다. 토벌 당시 한살짜리 어린 얘기를 내창(한천의 상류좁쌀 거라 함)에 던져두고 도망가야 했던 얘기를 하며 돌아서 눈물을 흘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차라리 듣지 말아야 했는지 모른다.

청산이도에 피신해 있었을 때 생활하던 일화가 전해지는 게 있다. 송모씨(여자, 당시 10살 미만의 나이였음)도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피신하여 살고 있었고, 일흔이 넘는 할아버지와 함께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변변치 못했던 그 시절, 고령인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앓아누워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귀하게 구한 좁쌀로 죽을 쑤어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했다.

하도 배가 고팠던 송모씨는 할아버지의 입으로 떠먹이다 흘려 수염에 묻은 좁쌀 죽을 혀로 핥아 먹으며 생활했다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얼마 못가 사망하게 되는데, 제대로 안장(安葬)시키지도 못한 채 할아버지 시신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잠을 잔 적도 있다.

이 시기에 희생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강봉형 처(79), 강영두(52), 강영제(51), 강정옥(19), 강창주(5), 고정익의 아들(4), 고기중의 아들(3), 김달

지(11), 김순신(37), 김순옥(9), 김승현의 딸(7), 고두평(62), 고여중 딸(8), 고이원(40), 김경현(75), 김기형(71), 김라생(37, 여), 김미정(5, 여), 김상하(?), 김순옥(9, 여), 김오춘(67, 여), 김용반 딸(1), 김용석(51), 김용식(23)과 그의 딸(2) 아들(4), 김용우(30), 김응하(56), 김천진의 아들(4), 김학능(31), 김학일(12), 문두준(59), 박 실(1), 박순범(14), 박인상의 아들(5), 송덕호(62), 양대식의 조모(60), 양덕순(8), 양봉호(60), 양정생(18), 양묘생(36, 여), 양중국(15), 양항진(26), 양화순(12), 현거실(64, 여), 현상수(27), 현시중(?), 현상중 조모(49), 현익종의 모친(28)과 조모(53), 현의중 자(7), 현대종의 아들(4), 홍순현(25) 등으로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어린이, 부녀자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피난생활 중 토벌에 의해 학살되거나 기아와 병에 시달리다 사망한 경우도 있고, 오늘날까지 생사를 모르는 채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

지금도 아흔 아홉골 충혼묘지 바로 동녘 발에는 4·3 당시 노형 주민들이 피신하여 살았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어 숙연한 느낌을 갖게 한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낙엽이 쌓이고 원형을 찾아보긴 힘들지만, 한 두 평 정도의 땅바닥을 파고 살았던 삶의 흔적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거대한 위령탑과 잘 정리된 묘역에 당시 토벌의 일선에 섰다가 희생된 경찰들의 시신이 따로 안장되어 있지만, 더 이상 갈 곳 없이 밀리고 밀린 주민들은 조그맣게 땅을 해집은 삶의 공간 속에서 숨죽인 세월을 감내하여 왔으리라.

소개민 중 산으로 피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전한 것만은 아니었다. 오도롱 전봇대 절단사건 후 또 다시 남당(이호 현사동)이나 백개(이호 동부락)로 거처를 옮겨야 했던 사람들은 도피자 가족이라고 오도롱의 학교터에서, 도두의 지서 앞 돛박웃흙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생을 치러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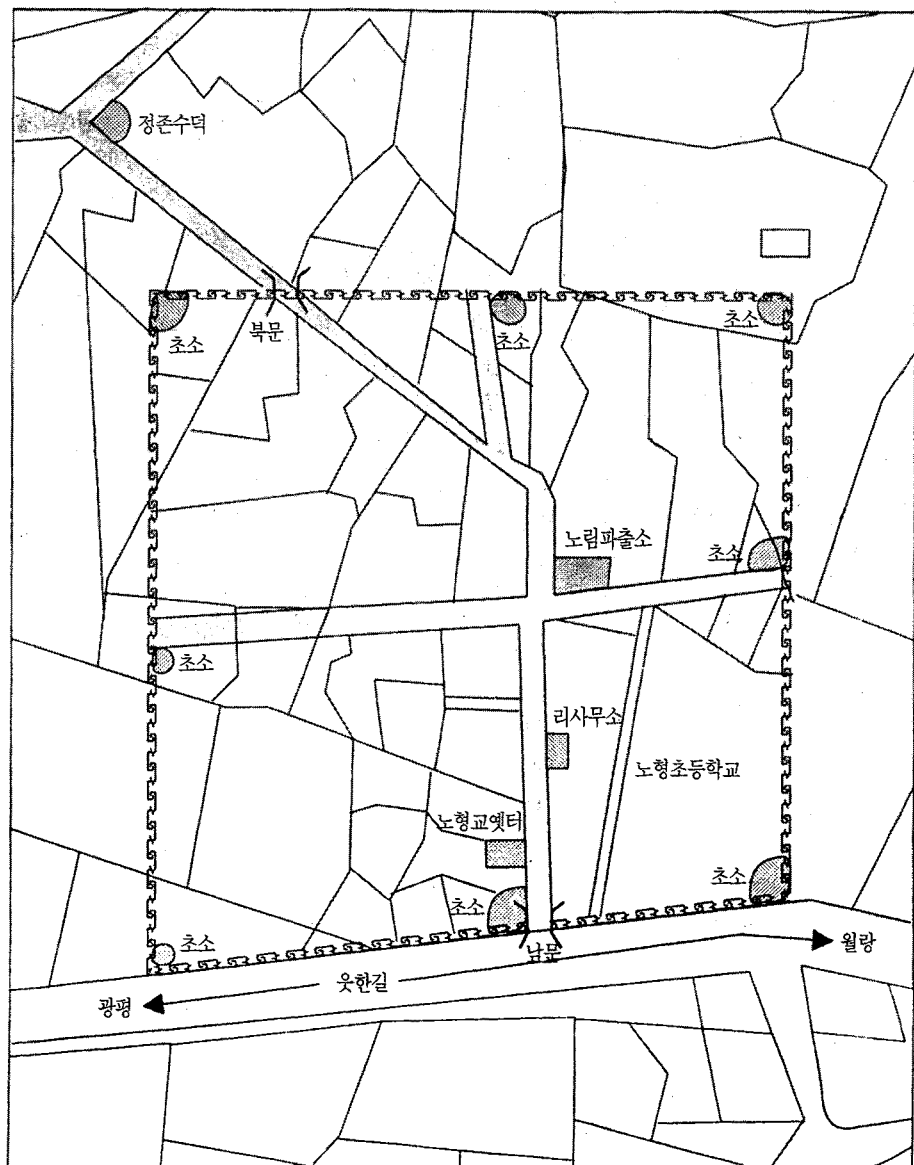
기축년의 봄은 왔건만

해가 바뀌고 봄기운이 서서히 감돌고 있었음에도 쉽사리 기지개를 펼 여유를 갖지는 못했다. 도두 마을을 필두로 일주도로를 우회하고 돌아온 선무공작대가 노형에 이르러 종지부를 찍고 있었으나 아직도 아흔 아홉 골이나 여타 지역에 피신해 있던 주민들에게까지 봄별의 은혜로움은 닿지 못하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뿌린 ‘귀순하면 살려주겠다’는 비라가 사방에 깔렸다. 내려가자. 이젠 더 이상 갈데도 없다. 우리들이 있는 위치가 다 알려져 버리니까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하여 3~4개월 은신하던 곳을 뒤로 하고 귀순의 길에 올랐다. 내려온 사람들은 전부 동척회사에 들어갔다. 모슬포 쪽으로 내려가자 동척회사로 끌고 간 것이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미 수용되어 있었다. 밀밥에 소금에 절인 마늘장아찌가 반찬으로 나왔다. 거기서도 몸이 약한 사람들은 죽어갔다. 군사재판을 통하여 육지 형무소로 보내진 사람들은 6·25발발 이후 돌아올 줄 몰랐다. 그러나 풀려난 사람들은 정존 마을의 집단거주지로 들어와 살 수 있었다.

해변쪽으로 소개갔던 주민들도 옥죄인 삶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소개령 이후 1949년 봄에 들어서서야 주민들의 복구지가 정해졌다. 노형동 정존 마을에 성을 쌓아 집단거주지(건설부락 혹은 재건부락이라고 하였음)를 만들면서 노형동 전체 주민들은 함바집을 짓고 살아야 했다. 불탄 집터의 울담이나 밭담을 등짐으로 져 나르며, 성을 쌓고 난 후 성담에 붙여 폭 1.5미터 깊이 1.8미터 정도의 도랑홈을 파고 가시나무 등속으로 둘러쳐 습격을 방지하였다. 노형교 동쪽 율타리 — 강대규씨 댁 북쪽 — 수덕동산 동남쪽 20미터 지점 — 양영종씨 댁 동쪽에 이르는 동서 약 220미터 남북 약 210미터 정도의 재건부락이 형성되었다.

집단 거주를 하기 위하여 1949년 봄 원래 월산 출신이었다가 도두리에



▲ '재건부락'을 건설하며 노형 사람들이 정존 마을에 쌓았던 성담 구역.

소개내려와 살고 있었던 소문진씨 댁에서 노형의 각 마을 대표들이 모여 마을 재건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그러면서 노형재건축진위위원회가 결성되는데, 강명표(노형리장), 양성숙(건설부장), 현용필, 현태수(서기), 김용창(총무), 양항연(재무)이 선출되었고, 각 마을 대표로 강명표(함박이굴), 양성숙·소문진(월산), 양항연·문태효(정존), 김용창·현태수(월랑), 김창옥·현명환·현용필(광평)씨 등이 회합을 가지면서 시기나 방법을 숙의하여 나갔다.

성을 쌓고 윤번으로 보초를 서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꿈꿔봤지만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산쪽에서 내려와 식량을 털어가면 경찰측에서는 보초섰던 사람들에게 폭도와 같이 동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타하거나, 혹은 산에서 내려온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핑계를 대고 여자의 몸을 더듬기도 하는 비인륜적인 행위도 흔했다. 그런 상황이고 보니 혹시 자신이 해당자가 되지 않을까, 산 부대들이 직접 쳐들어 오는 길목에는 보초를 서는 것도 기피하곤 했다.

김임관이라고 하는 놈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왓싸부대'라고 해서 쳐 두드리고 했어. 때리는 것도 지치니까 남을 빌어서 때리는 거라. 김임관 처남이 있었는데, 도두리 한청대장이랴주게. 그 장인은 위에서 잡아다 죽여버렸거든. 그 포마시(양값음)로 소개민들을 원수로 생각한 거지. 나도 한번은 잡아다 놓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처럼 해보라면서 발로 차고 앉혀놓고 아굴착(턱)을 차고.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때릴 수가 없거든. 거짓으로 때리는 척하니 '방망이를 이리 주라'고 하곤 그 사람을 때리며 '꼭 이추룩(이렇게) 허라'고 하니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날 때려야지. 그래서 이 웃독지(웃어깨) 맞았던 것이 지금도 잘 쓰지 못해.

(현명환)

차츰 절서를 잡아가던 시기였을까. 같은 동네 출신이었던 한 사람은 손가락질을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무슨 유감이 많아서인지 고자질

을 일삼다가 군인에게 총살된 사례도 있었다.

성을 쌓고 난 후 비라가 한번 뿌려졌던 적이 있다. 비라가 뿌려지자 한 사람이 잡혀가 심한 고문 끝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 4·3 초기에 산으로 피신했다가 동척회사에 가서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그 날 성을 지키다가 보초를 잘못 섰다고 해서 죽어버렸던 것이다. 오히려 산쪽의 연락책으로 몰아부친 것이었다. 산쪽에서는 자기네를 반대한 배신자라고 지목한 특정인을 지적하여 '누구누구는 남로당에 뭐 어 떠고 저 떠고' 하는 비라가 뿌려버리기도 했던 시절이었다.

집은 각자가 자기 능력껏 돼지 막사 비슷하게 한칸을 돌로 쌓고 나무 잘라다가 억새풀로 덮어서 목장의 소막같이 지었다. 한편엔 눕고 한편엔 밥을 해먹으면서 살아야 했다. 배급은 없었다. 몇해 후인 51년, 52년 되니까 구호 양곡이라고 해서 밀채같은 것을 조금 주면 그걸 가지고 썩같은 거, 진풀, 팽이쿨같은 거 뜯어다가 같이 버무려 죽이나 범벅, 떡을 해먹으며 연명해야 했다.

열병도 돌았다. 그러면 그곳에 다니지 말라며 출입을 막았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환자가 있는 집의 입구에 물이나 길어다가 놓으면 그 물을 마시면서 며칠씩 나오지 못하게 하곤 했다. 열병으로 인해 재건부락 시절에도 어린이나 아까운 목숨들이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죽어갔다.

48년 5·10선거가 무위로 돌아가고, 제주의 선거는 다음해에야 비로소 치를 수 있었다. 이 때 노형이나 해안, 연동 등지의 주민들은 도두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도두초등학교에서 치러진 투표는 지난 해에 호되게 당했던 터라 불에 데었던 사람들처럼 앞다투어 투표장으로 몰렸다. '임신한 사람들은 아기 남겨 뒀해' 하면서 일주도로까지 행렬이 이어질 정도였다.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며 사람들이 일부 다치기도 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말도 들렸다. 도두나 몰래물, 이호 마을의 주민들도 도두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선거에 참여하면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때는

산에서도 다 내려오고 함바집들을 지어서 살 시기였다.

해방 공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만무했고, 급기야 4·3사건의 소용돌이 속인 1948년 11월 19일에 전 교실(당시 3개 학급)이 불에 타버리는 비운을 맞보아야만 했던 함박이굴 학교는 마을마저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외도, 이호, 도두 등지의 해안 마을로 강제 이주당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노형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김희인 선생(1920년생)의 증언을 들어보면 “1948년 9월 21일, 노형국민학교로의 근무명을 받아 함박동에 부임하고 보니 시국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비품(책걸상, 학교종 등)은 간 데 없었다. 당시 이선영 교사가 학교 직인을 갖고 있었는데, 생명의 위협으로 사직상태에 있어서 수소문한 끝에 단지 직인 하나만을 인계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 당국에서는 노형국민학교의 소개 학교를 도두국민학교로 정하였고, 1949년 3월 15일자로 노형국민학교는 폐교당하고, 직인을 당국에 반납해야 했다.

그 후 4·3으로 인한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마을이 재건되었고, 이와 함께 1950년 7월 1일 도두초등(국민)학교 노형분교가 재건부락이 형성되었던 노형동 1400번지에서 개교한다. 1952년 9월 30일자로 다시 노형분교에 부임했던 김희인 선생의 말을 들어보면 “분교로 부임하고 보니 동민생활은 쭉과 마늘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였고, 도저히 학교는 복구될 수 없는 상태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을 유지들과 분교 운영 협의를 가진 결과 기성회를 조직하는데 합의하였다. 회장에 김창하, 총무에 문태효, 재무에 양필, 이장에 강명표씨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부형들과 함께 목장에 나가 나무를 베어다가 책걸상을 만들고, 교실 바닥과 유리창을 새로 꾸미는 등 힘겹게나마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다. 교육청과 교섭하여 가교사 2실을 신축하기도 하였지만, 재정이 워낙 모자라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자원봉사와 학부형들의 부담(당시 교실당 15만원씩 30만원)으로 신축 완공되었던 것이

다.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외도 하천공사 작업에서 받은 밀과, 구호물자로 배급된 소금을 공동판매하는 등 후세 교육을 위한 열정들이 남달랐다고 전해진다.

1953년 4월 1일 노형국민학교는 6년제 3학급 편성 인가가 나고, 노형동 1390번지에 부지를 마련, 본교로 정식 승인되면서 그 달 10일 개교를 본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고 끝에 교실이 완공되고 준공식을 치르려고 했을 때, 비용이 없어 마을 포제로 사용했던 돼지고기를 음복으로 쓰지 않고 준공식 접대용으로 제공받아 치렀던 일화는 지금도 주민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저마다 살던 곳으로, 그러나

1954년에 이르러 복구가 가능한 마을부터 차츰 제자리를 찾아 이주하여가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월랑에 성을 쌓고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 행정당국에서도 난민귀농 정착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1954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제주도 일원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도 중산간 부락 일대 이재민들은 그간 재산공비 출몰로 인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원주지에 복귀할 수 없었던 것이 작년 가을부터는 언제든 이 지대에 구복할 수 있는 치안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번 봄을 기하여 복구 영농정착사업을 추진하려는 것”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정촌 마을에서의 집단생활은 5~6년만에 매듭지어지고 각 마을로 되돌아가 삶의 보금자리를 꾸려나갔다. 그러나 함박이굴이나 방일리, 개진이, 드르구릉에 살던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돌아갈 고향이 있지 못했다. 그 시기까지도 신작로 위쪽으로는 공비출몰지

4) 『난민정착(4·3사건피해상황조사)』, 1955, 정부문서보존소 소장.

역이라고 해서 복구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4·3으로 인해 많은 가족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옥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부락 당시 지붕이나 가리고 살았던 움막이나마 고치고 다듬어 대강 살아가는게 오히려 편했다. 그래서 대부분 정존 마을을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다. 또한 흥흥한 애기도 나돌았다.

함박동이라는 걸 한자로 보면 좋지 못하데요. 깨어진 쪽박이라 해가지고, 깨어진 쪽박형이라 해서 여기 와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옛날부터 그런 전설이 있긴 있었어요. 사태 후에는 집터가 있어도 아예 여기 와서 살질 않았죠. 처음에 이곳에 터를 잡을 때는 고서머를 동산이 청룡백호가 요렇게 돌아가고 큰 서더래기(돌무더기)가 있어서 뱀 머리형이니까 이 동네가 막 좋다고 하여 들어와 보니 하나도 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함박동이 벌려진 동이니까 이름 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참에 그 시국이 당해버리니까 안들어 왔지. (이이양)

되는데로 붙어 사는 삶이 정들면 고향이라고 눌러 살기 시작했다. 각각 살던 곳으로 떠났지만 그 마을들 역시 원래 집터보다는 신작로 밑쪽으로만 적당히 터를 잡아나갔다. 원래의 마을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중 더러는 제주 시내(성안이라고 하였음)쪽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람도 있었다.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는 고향에 무슨 미련이 남겠냐며 훌훌 털고 일부는 육지나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도 있었다. 마을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3으로 인한 희생도 컸었고, 또한 복구하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기본 가구수가 되어야 가능했다고 한다. 마을의 중심역할을 했던 학교도 옮겨진 상태였다.

‘놈의 대동’(남과 같이 더불어)하여 사는 삶이 60~70년대로 이어지면서 완전한 정착을 이루기 시작했다. 다만 살던 집터는 농사짓는 땅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초 드르구릉 쪽으로는 그린벨트가 그어지고

함박이굴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자연녹지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더욱 이주하여 살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집터 때문에 곤란을 겪었던 것은 아니었다. 토지의 가격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시절이라 남의 땅일지라도 집터 샀으로 보리쌀 몇 말을 주거나 땅주인의 밭을 갈아주는 조건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도 어신 디’(입구가 없는 곳)도 당연히 골목길을 내고 살 수 있었다. ‘도 막아분 집 잘 되는 거 본 도래 웃다’(입구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 집안은 망한다)라는 속설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터였다. 아이들이 분가할 정도로 자란 것도 아니어서 집터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요인도 있었다. 오히려 4·3으로 인해 죽은 영혼이 슬프게 간섭해 왔다.

꿈에 4·3때 죽은 아주버님이 자꾸 나타나서는 “집으로 가자, 옷도 없노라, 팬티도 없노라”하고 나 역시 자꾸 아프고 했어. 그때 고모가 살아 있었을 때였는데, “나 꿈에 이렇게 저렇게 험수다”하니까 고모가 “그러면 굿이나 열어 질이나 쳐드리라”고 하였지. 그래서 굿을 1주일이나 했어. 아홉명 전부 굿을 해드리니까 그때 돈 한 200만원은 더 든 것같아. 질을 친 지 한 20~30년 지났지. 굿을 하니 그후로부터는 편안했어. 마음도 편안하고 짐이 막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는데 몸이 가뿐한게 좋아서 훨훨 날아날 것같아. 심방은 입매김도 좋았지. “아이고 설운 나 딸아, 아이고 설운 나 딸아…” 옷도 죽은 사람 숫자대로 다 입히고 신발까지 챙겨 전부 바치고. 그 후엔 꿈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집안 일이 그렇게 잘 됐어. 돼지나 소도 새끼를 잘 낳고. (고정, 74세, 방일리 출신)

가족간의 불화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함박이굴에 살았던 현모 여인(현재 서울 거주, 1938년생)은 후손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4·3으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던 것이 후손이 있어야 된다고 하여 양자를 친척 중에서 입적시켰는데, 자기 몫은 조금도 남겨주지 않고 조상의 땅을 전부 이전하여 버렸다는 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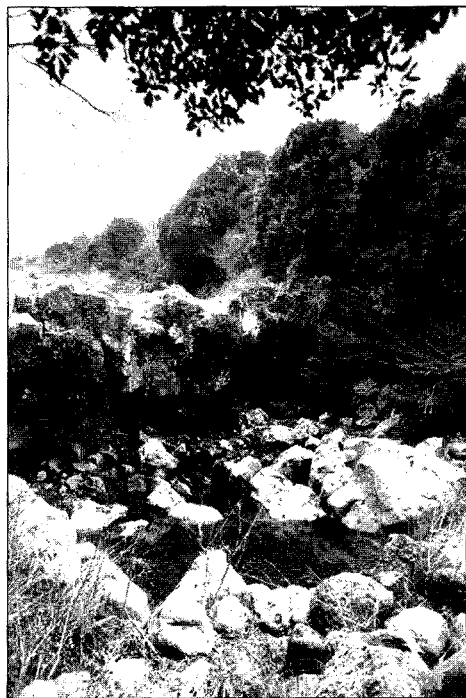
재판을 걸어 소송을 하려고 해도 집안 망신일 것 같아 그만 두었다는 이 여인은 섭섭함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시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 이름답던 배엄나리는?

지금은 사라진 이 마을들이 밀감나무 과수원이나 농경지로 바뀌면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못내 아쉬워 하는 것이 있다. 80년대 초에 들어선 쓰레기 매립장 때문이었다. 누운오름 바로 동쪽으로 도근천으로 이어지는 내(川)가 흐르고, 그 내에 붙여 제주 시내의 쓰레기가 10여년 동안 오름 높이만큼 매립된 적이 있었다. 지금은 봉개동으로 옮겨 갔지만, 밭에서 농사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 뒤따랐던 곳이다.

쓰레기를 매립할 때는 밭에 일하러 갈 때 점심을 싸가지고 가서 펼쳐놓자마자 밥방울보다 파리가 더 많아. 그때가 장병구 지사 시절일 거야. 자연보호 한다고 데려다가 보였다고요. 도시락 놓고 한번 잡춰 보라고. 도시락을 여니까 밥이 안보여 버려. 기자들 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지. 차마 찍지를 못하데요. 그때부터 약간 약을 한다 뭐한다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여름에 월산마을에 에프킬라 하나 지원해주는 정도였지요. 인근에 있는 일고나 농고, 전문대학같은 학교에서도 교실에 끈끈이를 붙이고 파리를 잡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뿐만이 아니고 밤이 되면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지독할 정도였으니까 감히 누가 그곳에 집을 지어 살려고 하겠어요. (현익철)

쓰레기를 매립했던 곳에는 속칭 '배엄나리' 라고 하는 경치 좋은 곳이 있었다.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주변 경치도 동백나무나 철쭉들이 우거져 유원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노형동의 유일한 지역이었다. 특히 여름철에 폭포같이 내리는 그곳의 물을 맞으면 땀띠나 신경통이 말끔히 사라진



◀ 풍광이 뛰어나기로 이름난
배염나리 계곡

다고 하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기도 했었다.

지금도 가물지 않으면 스민 지하수가 암벽 사이로 졸졸 흐르긴 하지만 예전의 풍광은 찾아볼 수 없다. 나무들도 많이 도채해 버린 상태다. 거기에는 얽힌 전설도 있다. 장수 둘이서 싸움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말을 타고, 다른 사람은 그냥인 채로 싸우는데, 말탄 장수가 휘두른 칼에 목이 잘리면서 떨어져 이룬 형상이라는 얘기가.

한때 노형 주민 사이에서 유원지로 관광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무산되어버리고, 최근에는 쓰레기가 매립된 그 터에 복토를 하고 잔디씨를 뿌려 시민 휴식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한 계곡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도 놓여져 있는 상태다.

마을터는 변했어도 응어리가 웅이처럼 박힌 세월

예전부터 함박이굴에는 마을 소유의 땅이 있었다. 큰송물머생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사실 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운 돌밭레(암반)가 널리 퍼져있는 그런 땅이었다. 설촌 당시부터도 원래 사람도 살지 않았을 뿐더러 덤불이 우거지고 삼동나무가 특히 많아 삼동을 따먹던 추억이 서린 곳이었다. 구릉(뫼)이 많아 아이들은 개구리를 잡기 위해 많이 휘집고 다녔다. 다만 어린 아기들이 홍역을 치르다 치료도 못해본 채 죽기라도 하면 이곳에 흙 몇 줌 끌어모아 묻었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던 곳이었는데, 80년대 초반에 한라전문대학이 들어서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 버렸다. 거슬러 올라가면, 5·16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마을이 소유하던 공동목장이나 공회당 터들이 시·군으로 귀속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제주시 당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이후 도내 곳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목장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는 찾기도 하지만, 이미 팔아버린 땅은 돌아올 줄 모르고 있다. 또한 혐오시설도 아니고 학교시설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리라는 기대로 주민들도 처음에는 문제를 삼다가 이제는 인정해버린 상태다.

노형과 인접한 해안마을 일대는 일찍 전기가 들어가고 자동차가 다니면서, 그리고 어로생활을 통하여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비교적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노형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부산업도로로 이어지는 길이 현재의 월산정수장까지만 포장이 되었을 정도였고, 전기나 수도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도 7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가능했다. 정기노선 버스도 하루에 다섯 차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중산간의 넓은 농토를 기반으로 밀감나무를 식재하기 시

작하고, 새마을 운동의 활기로 농로 포장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다만 축산기반은 다른 마을과 달리 위축되었다. 특히 제2횡단도로의 건설은 오히려 농로로서는 사용이 억제되는 요인이 되었다. 조합을 이뤄 관리하던 연합 공동목장도 저마다의 몫을 팔아넘겨버렸다.

그러는 사이 시도 때도 없이 솟구쳐오는 분노나 그리움, 슬픔같은 것은 살아오는 반백년 동안 속으로만 삭히고 마는 사치였는지도 모른다. 매년 조상묘를 찾아 벌초하는 8월 초하룻날, 삶도 죽음도 모르고 봉분마저 마련하지 못한 그 날은 왜 그리 답답한 지.

4·3으로 인해 식구들 중 할아버지와 아버지, 형, 형수, 동생, 조카까지 모두 8명을 저승으로 보내야 했던 한 유족의 통한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응어리로 남아 있다.

희생자 가족의 한 사람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남아 생각하니 4·3사건 이래 강산이 5번 변했다. 무차별 우리 가족을 학살시키는 것을 봤다. 할아버지, 아버지, 조카, 노약자가 무슨 죄가 있기에 몰살시켰단 말인가.

그 당시 우리 가족은 국가의 적이란 말인가. 그러면 나도 국가의 적이기에 왜 적을 대한의 군에 입대시켰단 말인가. 나는 가족을 정부에 몰살당하고도 6·25 때 군에 충성하기 위하여 최전방에서 보병으로 피비린내 마시며 충성을 다하였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던 내가 국가에서 생각하는 적의 가족이라면 6·25 전투시 월북했을 것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싸워야 하나,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가. 오직 국가를 위해 싸웠다.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 막연했다. 집은 불에 타서 없고 가족은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에 호소도 못하였다. 가족에게 살아 남은 죄가 크다. 고인에게 만분지 일이라도 사죄하라고 정부에 호소한다. 국가는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는가.⁵⁾

5) 제주도의회, 『제주도 4·3 피해조사 보고서』, 1997의 현상지(1930년생, 개진이 출신)의 증언.

반세기 동안 아물지 못한 상처로 치유되지 못한 채 마그마처럼 속으로
만 잦아들던 이 물음 앞에 정부가 선뜻 나서서 화답해야 할 차례가 되었
다. 더 늦어 화석으로 굳어지기 전에.